

폭넓은 강의를 무상으로... 온라인교육 플랫폼 '에드워드' 주목

네이버 '온라인 클래스' 제공해 교육 관리 학생들의 비대면 학습 지원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개학이 재차 연기되면서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교육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의 비영리 교육재단 '커넥트재단'은 무료 온라인교육 플랫폼 에드워드(edwith)를 통해 대면 교육이 힘든 순간에도 끊임 없는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드워드'는 커넥트재단의 대표 온라인교육 플랫폼이다. 제휴 교육기관들과 함께 초·중등 교육과정부터 소프트웨어 교육까지 폭넓은 주제의 강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초·중·고·대학교 및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수강생 등록, 학습 진도율 관리 등 온라인 교육 관리 기능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클래스는 에드워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다. 커넥트재단은 최근 대면 교육이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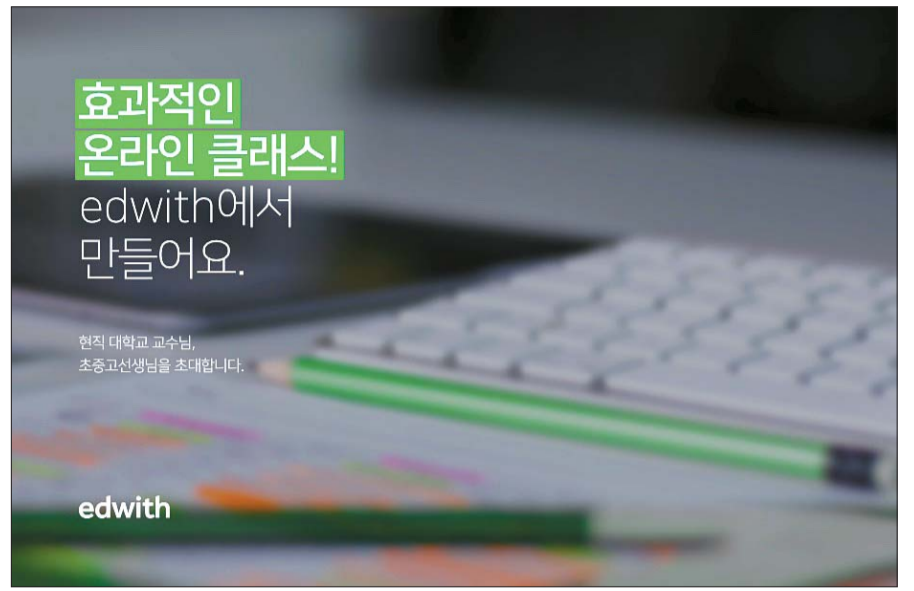
워지면서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는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신청 수가 1월 대비 약 200% 증가했다. 실제로 KAIST·청강문화산업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는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 교수가 추가적인 학습 과정을 온라인에 개설해 학생들의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비대면 교육 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의 증가에 부응해 커넥트재단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 에드워드 '라이브 방송' 기능을 추가하고 무료 공개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교육 소통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수강생 등록 등 온라인 클래스의 장점이 함께 적용돼 교육자와 학습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커넥트재단의 김지현 사무국장은 "커넥트재단은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준다'는 이념에 따라 교육자·학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편리한 교육 플랫폼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비대면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끊임없는 학습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커넥트재단과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들이 함께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스타마크(STAR-MOOC: Science & Technology Advanced Research Massive Open Online Course)'로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학기 강좌가 진행된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스타마크에서 인공지능 등 이공계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양질의 전문 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커넥트재단은 에드워드를 통해 대면 교육을 하기 어려운 때도 끊임 없는 학습을 지원한다. 제휴 교육기관들과 함께 초·중등 교육과정부터 소프트웨어 교육까지 강의를 무상 제공한다. [사진 네이버]

질문·답변한 모두에게 수익 배분 정교한 시스템의 지식공유 플랫폼

알통

지식공유 플랫폼 알통(www.altong.com)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여러 일간지에 눈길을 붙잡는 전면광고를 연이어 내면서다.

알통은 인공지능(AI)이 인류의 일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한 오늘날, 100년 이상 지속된 금융자본주의라는 불합리한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야만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단언한다. 아울러 금융자본주의는 알통의 '지식자본주의'에 의해 반드시 붕괴돼야 할 경제체제라고 역설한다.

인터넷상의 모든 지식·정보에 금전적인 가치를 매긴다면 얼마일까. 알통 서비스는 공짜로 인식돼 온 인터넷상의 지식·정보에도 폰트나 사진처럼 지적재산권을 부여한다는 기발한 역발상에서 출발했다.

예를 들어 '하늘은 왜 파랗까요?'라는 질문에도 지적재산권을 부여해 이 질문을 한 사람과 답변을 단 사람에게 수익을 배분해 주는 구조다. 이 수익은 일회성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유입되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조회될 때마다 창출되는 반영구적이다. 수익의 재원은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광고다.

알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수익원인 'ANSWER(Altong Network System Worth Enthusiastic Referrals)'에서는 나와 연관된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하면 1만 알이 지급된다. 지적 활동의 산물인 '알'은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소



치우천왕을 모티브로 한 알통의 로고, 한글과 로마자(altong)로 동시에 읽힌다. [사진 알통]

득세가 원천 징수된 후 본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교통카드와의 시스템 연동이나, 올해부터 본격 모집에 나설 오프라인 가맹점이 확충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약 240억 알까지 받을 수 있다.

정교한 시스템은 알통의 또 다른 강점이다. 회원들의 평가 점수와 정보의 양을 독자 알고리즘을 통해 과학적으로 환산해 결정하는 답변 나열 순서나 '훈훈알' '폭대기'와 같은 독창적인 기능이 세심하게 설계됐다.

포트폴리오는 지식공유 플랫폼에서 끝나지 않고 ▶회원 각자가 본인의 보유 알을 오프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알pay' ▶실시간 퀴즈쇼 ▶수익형 동영상 서비스 ▶알통에서 생성되는 질문과 답변을 거래할 수 있는 지식거래소 등 지금부터 10년 후까지의 계획이 촘촘하고도 구체적으로 짜여 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아이러니.
강인하지만 우아하다
화려하지만 심플하다
거침없지만 편안하다

공존할 수 없던 모든 것이 허락된
단 하나의 SUV

Xperience More. XM3

www.XM3.co.kr에서 쉽게 구매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담하고 우아한 라인으로 완성된 프리미엄 디자인 SUV |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직관적인 경험을 주는 운전자 중심의 하이테크 인터리어 | 다이나믹한 성능에 놀라운 연비까지 갖춘 르노그룹&다임러 터보 직분사 엔진

정부 승인 표준 연비 및 평균 · TCe 260 7단 EDC (187) 복합연비 13.2km/l (도시 11.8km/l, 고속도로 15.3km/l), CO₂ 배출량 125 g/km, 3등급, 배기량 1332cc, 공차중량 1345kg · TCe 260 7단 EDC (177) 복합연비 13.7km/l (도시 12.2km/l, 고속도로 15.1km/l), CO₂ 배출량 120 g/km, 3등급, 배기량 1332cc, 공차중량 1300kg · TCe 260 7단 EDC (167) 복합연비 13.7km/l (도시 12.2km/l, 고속도로 15.1km/l), CO₂ 배출량 120 g/km, 3등급, 배기량 1598cc, 공차중량 1300kg · 1.6 GTE 무단변속기 (187) 복합연비 13.4km/l (도시 12.1km/l, 고속도로 15.4km/l), CO₂ 배출량 123 g/km, 3등급, 배기량 1598cc, 공차중량 1300kg · 1.6 GTE 무단변속기 (167) 복합연비 13.4km/l (도시 12.1km/l, 고속도로 15.4km/l), CO₂ 배출량 123 g/km, 3등급, 배기량 1598cc, 공차중량 1300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 차이가 있습니다. ※ 오토 스티어링 시스템 사용 시(공회전 제한 장치) ※ 자세한 내용은 영업센터 (080-300-3000/02-300-3000)나 가까운 지점 및 홈페이지 (http://www.renaultsamsung.com)로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20 RENAULT SAMSUNG MOTORS 르노삼성자동차 SAMSUNG